

지역 매 아리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중·고 자살예방교육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현영삼)는 지난 30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8년도 생명사랑, 생명존중을 위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각 학교에서의 선착순 신청을 받아 자살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예방교육은 '나의 소중함,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이유, 자살위험 징후, 생명을 지키는 나의 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을 주제로 이뤄진다.

또한 청소년에게 생명존중의 의식을 높이고 학교생활, 학업, 가족, 친구관계 등 다양한 원인을 통한 자살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위기(가능)청소년을 발견·구조하여 전문적 심층상담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팀은 자살예방 이외에도 소년법선도 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가정의 달 행사

김제시립도서관(관장 송운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김은 물론 도서관에 친밀감을 형성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을 마련했다.

5월 1일에서 31일까지 가족사랑 관련 추천도서 목록을 비치 및 배부하고 동화 속으로 포토존이 한달동안 지속된다.

1일에서 23일까지는 기발한 상상력, 들쭉거리는 몸짓과 소리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의 시선을 사로잡는 '간질간질' 원화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16일에는 빛과 물체를 이용해, 얇은 천에 비친 그림자를 이용한 '빛 그림자 공연'을, 19일에는 걱정을 가져가는 인형을 만드는 '가족 걱정인형 만들기'가, 23일에는 인물의 특징을 잡아 그려주는 '가족 캐리커처 그려주기'를, 어린 이년을 제외한 5월 매주 토요일에는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 '토요 영화상영' 등을 준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선율로 피어나는 '전통옹기'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19일 '옹기종기 음악회'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옹기가마(등록문화재 제403호)에서 '옹기종기 음악회'가 오는 19일 (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문화재청과 김제시 후원으로 '2018 생생 문화재 사업' 프로그램 중 하나로 사라져가는 옹기의 소중함과 전통옹기의 중요성을 관객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역문화재의 스토리와 함께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는 백산면 부거리(富巨里) 부창마을에 위치한

고 있으며 조선말기 축조됐다. 부창마을은 천주교 박해를 피해 이주해 온 신자들이 만든 마을이다.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옹기가마 6개가 있었으나 모두 없어지고 현재는 1개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부창마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옹기가마는 직접 장작을 피워 사용하는 전통방식의 가마이다. 천장에 난 작은 불구멍으로 뿜감을 넣어 전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가마가 길어도 균일한 소성이 가능하다.

또한 이곳을 운영하는 안시성 응

기장(전라북도 무형문화재 53호)은 도예학과시절부터 25여 년째 전라도 전통옹기를 구우며 옹기를 생활 속에 전파하고 있다.

가마 불 때는 사라져가는 옹기의 소중함과 전통옹기의 중요성을 체험객들과 모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고사례며니를 통해 같이 하는 모든 이들의 안녕을 빌며 떡(다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인정(人情)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관계자는 "모든 체험객들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역 콘텐츠스토리텔링을 더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중국 농업과학원이 완주군의 6차산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았다.

중국 농업과학원, 완주 6차산업 벤치마킹

농업인전문가공센터·꿈드림농장 방문

중국 농업과학원이 완주군의 6차산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았다.

완주군은 중국 농업과학원 당사기첸 맹산 등 일행이 완주 6차산업수익모델사업현장을 방문해 완주농업발전현황을 설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국 농업과학원은 완주군에서 추진한 6차산업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이 직접 조직화해 진행되는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봉동 읍소리에 있는 농업인전문가공센터와 용진읍에서 가공과

체함을 진행하는 꿈드림농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농업인 전문가공센터를 방문해 사업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조직화과정을 청취하고 중국에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HACCP 인증을 받아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해 주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순환구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소규모 가공창업으로 진행된 꿈드림농장조합을 방문한 중국 농업과학원 직원들은 체험장 현장을 돌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 등 호응을 나타냈다.

김중옥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 완주지역에 맞는 글로벌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외국에서도 찾아오는 완주 농촌체험현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최소화 앞장 다짐

장덕상 도의원 후보, 도내 지자체 전면 확대 필요성 제기

장덕상 전북도의원 후보(민주평화당, 김제시 1선거구)는 지난 30일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율이 50% 미만이라고 지적하며 비정규직 최소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덕상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지지부진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대가 희망고문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후보는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건 도내 정치권의 의지 문제"라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거꾸로 도내 지방자치단



장덕상 후보

체들이 올해 비정규직을 대거 채용할 계획으로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최소화에 앞장서야 할 전라북도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정규직화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해소야말로 최상의 복지정책"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곧 최상의 복지라는 인식이 전라북도와 김제에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를 평화와 상생 문화 중심으로"

박준배 김제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준배 김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30일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이 평화와 번영, 상생 문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김제시가 평화와 번영, 상생 문화 정책을 제시하고, 김제지역 쌀과 황해도 해주시의 산삼 등 북한의 약초를 물물교환을 통해 남북 간 평화통일을 향한 대열에 선봉장이 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이 남북 간 평화통일의 계기가 되었으며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간 자매결연을 통한 평화 문화 상생의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평화통일의 계기를 만들고 김제시가



박준배 후보

평화통일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서서 평화와 상생 문화를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김제 벽골제, 모악산, 금산사, 동헌·내아·향교, 금산교회, 수류성당, 증산교 본부 등을 연계해 한민족 문화 체험 벨트장으로 홍보하고 세계 문화유산등재 등을 검토 추진하겠다"며 "문화자원의 연계복합을 통해 브랜드화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새만금 신항만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면 김제를 통해 한민족의 문화적 특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의 상생평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집중 지원

완주군이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 교육을 마무리했다.

완주군은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신규농업인 30명에 대한 영농기초기술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대상자는 완주군에 정착 또는 정착 예정인 귀농귀촌 교육생들로 이들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총 6회 과정으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통해 농업정책 및 영농관련 이론교육과 실습이 이뤄졌다.

특히 블루베리 전정 포장관리, 고추 터널 정식, 단호박 재배 및 가공 등을 농가가 현장경험을 통해 직접 교육해 이해를 도왔다.

김중옥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규농업인들에게 이번 영농기초기술교육이 전문 농업인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며 "농업인으로서는 자긍심을 갖고 성공적인 완주 정착의 꿈을 이루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